



건강한 재료 듬뿍 담백한 맛 잡았다



특순대 국밥.



전주 한옥 모주.

전주 '금임 피순대'

전주 로컬 맛집...허영만 백반 기행 방영도
속 짙찬 피순대 고소해·오소리 감투 별미
뜨끈한 순대국밥·모주 한모금은 환상궁합

전주하면 순대, 특히 피순대가 유명하다. 전북대 근처 순댓집 중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곳은 '금임 피순대'. 좁은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예로부터 유명한 전주 시민들의 로컬 맛집이기도 하다. 허영만의 백반 기행에 나오면서 물린 관광객들 덕분에 요즘엔 기다림은 필수라고 한다. 가게 외관은 허름하고 낡아 보여 그 역사를 보여주는 듯하다. 점심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피순대는 가게마다 차이가 있다. 대부분 고기, 두부, 채소 등의 재료를 넣고 선지에 버무려 장지에 넣고 찌낸 것을 말한다. 선지 때문에 붉은기가 있고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리는데 피순대 마니아들은 당면이 들어간 찰순대를 순대로 취급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가게의 메뉴판을 보면 '순대만' 시킬까

'순대'로 시킬까 고민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고민된다면 순대로 시키는 걸 추천한다. 함께 나오는 내장과 부속 고기들이 별미다. 배를 든든히 채우기 위해선 특순대국밥도 필수다. 메인 메뉴 못지않을 정도로 고기와 순대가 가득 들었다. 순대와 국밥이 나오기 전 식탁에 놓인 밑반찬들은 정갈하다. 파릇파릇한 부추무침, 묵은지, 깍두기, 고추장아찌 등 기본적인지만 맛은 강력했다. 뜨끈한 열기를 뽐으며 등장한 피순대. 한눈에 봐도 부드러워 보이며 먹음직스럽다. 부속으로 나온 오소리감투, 머리 고기 등은 순대와 함께 막 찌서인지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고 있어 윤이 난다. 피순대의 단면을 보면 넉넉하게 들어간 선지가 짐을 고이게 한다. 온전히 순대를 한 입

먹으면 녹진한 맛이 일품이다. 생강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거부감마저 사라진다. 구수한 맛과 함께 순대의 향이 살짝 있다. 그게 피순대의 매력이라면 매력이다. 초장이나 새우젓, 고추장아찌 등과 함께 먹으면 넘새마져 잡아줘 순대 초보자들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맛이다.

선지의 입자가 작고 고운 것은 물론 피순대를 감싼 장지는 얇디얇아서 질기기는커녕 금방 씹혀 넘어간다.

기름기 전혀 없는 고소하고 담백한 피순대의 맛에 그저, 황홀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나온 부속 고기. 특히 오소리감투는 신선 좋겠다. 식감이 살아 있다. 피순대만 시켰으면 섭섭했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잡내 하나 없이 부드럽고 전혀 질기지 않다. 비결이 문득 궁금해진다.

특순대국밥은 반찬으로 나온 부추무침을 모두 넣고 먹는 것이 팁이다. 국물 간이 좀 세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밥을 말아 먹으면 딱 적당하다. 국밥은 모듬시 밥을 말아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전주 모주 한 모금과 함께한다면 무릉도원이 따로 있을까. 전주에 와서 피순대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한번쯤 방문해 보는 걸 추천한다.

/이주연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